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특별 대담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특별 대담

기록집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특별 대담

기록집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특별 대담 기록집

발행일 2020년 6월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039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 뉴스퀘어 11~12층
발행인 이규석
기획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영기획팀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
디자인·제작 프레임에이
등록번호 KACES-2090-C001



©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특별 대담 결과기록집》에 실린 글과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있으며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기록집은 2020년 5월 29일(금)에 열린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특별 대담’을 녹취 및 편집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 기록집은 미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분야별 핵심 이슈를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구성·운영한 민관협의체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의 일환으로 운영한 토론회 기록입니다.

토론회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16년, 문화예술교육이 걸어온 발자취와 현재를
돌아보고, 문화예술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행자 /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장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토론자 /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 분과장
박소연 안양대학교 아리교양대학 교수
신정원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정민룡 광주북구문화의집 관장
추미경 (사)문화다음 대표

CONTENTS

오프닝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특별 대담	06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교육	07

1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담론

문화예술교육 개념 정의, 문화예술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4
-------------------------------------	----

2부. 학교예술교육 미래 방향과 창의성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미래와 방향	20
문화예술교육과 창의성, 다각화에 대하여	28

3부. 지역 현장 중심의 생태계 조성

지역 현장 중심의 생태계 조성 - 체계를 중심으로	36
문화예술교육 지역 현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인력구조와 R&D 등)	43

종합정리

향후 공론화가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미래 이슈	48
--------------------------	----

-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특별 대담
-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특별 대담

이동연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과 이동연 교수입니다.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의 연계 행사로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특별 대담」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특별 대담」은 지난 2019년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구성·운영한 민관협의체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이하 ‘공론화 추진단’)의 주요 의제와 논의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하였으며,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토론자분들께서는 공론화 추진단의 분과별 분과장이십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으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토론 주제에 대한 궁금증 또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교육

이동연 ● 전 세계적으로 올해의 상반기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라는 이슈가 빠질 수 없는데요. 코로나 이후 우리의 일상 속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육 또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후의 문화예술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대학교 아리교양대학 박소연 교수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너무나 할 것 없이 많은 분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어려움에 더하여 코로나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심리적으로 우울한 감정과 무기력감을 겪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교육이 이러한 상황에서 ‘치유’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에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1 미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의 핵심이슈를 논의하고 공론화하는 민관협의체로 총 6개 분과(학교분과, 사회분과, 창의성·융합분과, 기반분과, 지역분과)로 구성·운영(‘19.10월~’20.2월까지 현장, 정책 및 학계 관계자 등 총 30여 명 참여)

정민룡 ●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북구문화의집 정민룡 관장입니다. 글썄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시기라고 보입니다. 민낯이 드러났다는 이야기는 정화·청소 효과도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모순들이 드러났다고 생각되는데요. 교육의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인식했던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인지되고, 이러한 상황으로 공교육의 패러다임마저 여러 변화가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스트레스와 위기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필요한 과제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정원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연구소의 신정원 책임연구원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이후 굉장히 초현실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학생들이 없거나, 흔하게 두려오던 일상생활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모습을 보며 ‘아,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 놓았구나’란 생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언택트)’이 일상이 된다면, 예술교육 또한 ‘비대면’을 통해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지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추미경 ● 안녕하세요. (사)문화다움의 추미경 대표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뉴노멀이라는 명칭으로 비대면 방식 등이 부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 문화예술교육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인 소통, 연대감, 공동체적 관계망 등이 흔들리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발

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창의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고, 관련된 다양한 실험이 천천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임학순 ●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임학순 교수입니다. 요즘 문화예술교육 지역 현장을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 붕괴, 초토화, 중단이라는 용어들이 지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교육 현장이라는 것이 변화에 취약한 지대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시기에도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교육적 활동은 지속되어야 하며, 기존 프로그램 지원 중심이었던 정책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연 ●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활동을 많이 하시니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강의 등 활동하시면서 느낀 어려움 점, 혹은 특별한 경험 등이 있다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연 ● 저희 학교 교양대학에서도 많은 강의를 오픈하였으나, ‘합창’과 같은 수업 또는 몸을 활용하는 ‘무용’, ‘체육’ 등의 수업은 미디어 차원의 수업 진행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과연 이번 한 학기로 비대면 강의, 수업 등이 끝날 것인가?’입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비대면 활동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고민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학순 ● 저는 비대면 강의를 하면서 찾은 좋은 점이 있다면 바로 ‘활발한 인터랙티비티(Interactivity)’입니다. 오히려 대면 강의보다 피드백이 훨씬 활성화되는 상황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만, 비대면 강의·교육에서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현재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 플랫폼 품을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고, 연구개발이 선행되지 않은 환경에서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여전히 당혹스럽고, 어려운 부분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앞으로 차근차근 인프라를 형성하면서 가상공간 플랫폼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또 다른 방식의 교육의 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룡 ● 코로나 이후 진행하고 있는 비대면 활동 등은 여전히 임시방편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존의 수업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보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 등의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비대면의 본질 자체는 관계 자체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대면·가상공간 등에서 얼마나 변화의 시대 맞추어 관계를 유지하고 만들어갈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소연 ● 정민룡 관장님 말씀에 하나를 더 붙이자면, 우리가 이제까지 진행하

고 이야기했던 문화예술교육은 주도권이 ‘교육을 하는 사람’, 즉, 공급자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 변화에 따라 앞으로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와 환경이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정민룡 ● 저는 현재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가장 대응을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소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학교=안전한 장소’라는 인식이 깨지면서 기존 학교에서 진행하던 교육 방식이 얼마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마주하는 학생은 유튜브 등과 같은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소통 하고 있었으나, 학교에서는 이러한 소통과 관계 맺음이 있었는지,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정원 ● 저는 온라인 기반의 수업을 바라보며, 우리가 현재 온라인 강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툴(Tool)이 얼마나 ‘시각’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술은 시각뿐만이 아니라, 청각·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는 거의 시각 기반이어서 다른 감각은 활용할 수 없게 되어있는 점 때문에 예술교육 측면에서는 현재의 툴(Tool)이 많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경 ● 앞으로 참여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부분은 나날이 크게 요구될 것이고, 그렇다면 문화예술교육과 더불어 여러 공동체 활동 또한 요구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떤 새로운 감

각을 발견하고 연결할 것인가,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등 근본적 성찰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동연 ● 온라인 교육은 여전히 텍스트, 시각 자료 위주인데 교육을 위한 톨과 더불어 자료 또한 변화되고 발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토론하는 걸 걱정하셨는데, 너무 이야기를 잘해주시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 의제를 가지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특별 대담 기록집 —

1부. 문화예술교육의 고민과 고민

○ 문화예술교육 개념 정의, 문화예술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문화예술교육 개념 정의, 문화예술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동연 ● 첫 번째 이슈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담론 중 하나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입니다. ‘과연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으나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룡 ● 이 부분으로 참 오랜 시간 많은 논의를 했는데, 사실 정의를 내리라고 한다면 못하겠습니다.

과거 문화예술교육에서 개념 정의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과연 너는 누구냐’라는 부분. 그렇기에 저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속성을 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정의를 내리기 어려우니 하는 말 같아 보일지 몰라도, 지금 이런 개념 정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넌 누구니?’가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래?’라고 하는 방향성이 더 맞다는 생각입니다. 전 문화예술교육 본질이

사람이라는 생태계와 항상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를 지금 내리라고 한다면, 예술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조화로운 상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이렇게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임학순 ● 현장에서는 여전히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인가’, ‘이것은 문화예술교육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더불어 생활문화, 평생교육, 문화학습, 문화강좌에 대한 정체성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은 법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업의 내용적인 측면으로만 정의 내어진 부분이 있고, 그렇기에 너무나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던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한계점을 넘어 인지적 과정으로서의 접근 등 문화예술교육에 관련한, 보다 다양한 논의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신정원 ● 문화예술교육의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가 어렵고 예술에 속한 하위 범주가 많이 있는데, 이런 하위 범주들 또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흡수하고 변형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술이 결코 하나의 닫힌 집합으로 제시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면서도 학생들의 능력 개발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식으로 발전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추미경 ● 예술이 인간 혹은 세상을 감각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지식이나 경험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확장적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이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고요. 문화적으로도 소통하고 공존하고, 연대하는 이런 관점의 방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이라고 굉장히 가치를 부여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적 정의라든지 개념적 정의도 중요하겠지만, 정의는 시대마다 변할 것이고, 결국 '지금 시대의 문화예술교육이 어떠한 것에 좀 주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개념과 함께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문화예술교육이 법적으로도 좀 부정확하게 되어있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혼용이 많아서 문화예술교육의 개념들을 함께 논의해가는 과정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코로나 시기기도 하고, 예술과 문화의 위상과 역할이 나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정의하기보다는 서로 논의하고 시대에 맞게 새로이 만들어 가는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연 ● 참 생각할 것이 많네요. 사실 정의와 관련해서는 공문화 추진단 논의과정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예술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의 생각이 다를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현답을 바라면서 질문 던집니다.

박소연 ● 글썬요. 단순하게 접근을 하자면, '문화교육'이라면 많은 사람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느낌이 들고, '예술교육'하면 특별한 사람이 보다 더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파카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의 문화예술교육 지향점을 놓고 보자면 '예술교육'보다는 '문화교육' 쪽에 가까운 방향으로 확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적인 정의까지 고려해본다면 법적으로는 '문화교육', '예술교육'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학교, 사회라는 '장소성'을 기반한 범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서 작동되는 문화예술교육의 메커니즘을 정책적으로 받아들이 수밖에 없는 부분은 한계점으로 느껴집니다.

신정원 ● 저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문화'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조차도 어떤 것이 예술이다, 아니냐에 대한 논란을 뒤로하고 점차 개념이 확장되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과 문화의 접점을 주목하면서 발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학순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와 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체계를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끔 할 것이냐를 주요하게 생각해야 하므로 문화와 예술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에 예술이 가지고 있는 범주를 확장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확장의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문제,

지역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과정이 함께 실행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민룡 ● 저는 어떤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하기 전에, 결국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험에 대한 표현 자체가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어떠한 매체를 가지고 창작적인 행위를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예술로 보는 것까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에 대한 관점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자기 자신의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그 이후에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향점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연 ●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게 하나로 정의내릴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민룡 관장님 말씀처럼 각자가 한 번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2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미래 방향과 창의성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미래와 방향
- 문화예술교육과 창의성, 다각화에 대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미래와 방향

이동연 ● 2부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겠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내용적·질적 측면으로 볼 때 아쉬운 점이 있고, 학생의 흥미 유발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 등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요. 박소연 교수님부터 관련 의견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소연 ●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거의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시간 동안 굉장히 큰 양적 확대를 이룩해 온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도 있으나 성과도 부정할 수 없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지원 시스템을 만들었고, 많은 수의 학생이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예술강사도 많이 배출·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계기인 '정부 주도의 지원구조'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각자의

니즈가 모두 달라졌기 때문에 학교와 예술교육 또한 이런 다양한 니즈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의 경직된 시스템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전제로, 우리가 공동으로 인식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합의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 합의된 가치 실현을 위하여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법에서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우리가 공감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향점을 구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보편적인 교육을 위해 선택한 '학교'라는 장이 현실점에서 요구되는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기에 적절한 장소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속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학생의 수요 자체가 많이 변화되었다는 지점입니다. 지금의 학생들은 스스로 교육과정을 짜기를 원하고,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을 경험해보는 등 배움에 대한 요구가 확장되어가고 있지만, 지금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체계로는 이를 반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다각화라든가, 지역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이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동연 ● 사실 지역과 연계한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지는 못했는데, 생각해보면 학교라는 공간 또한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지 않나요? 임학순 교수님께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학순 ● 제가 지역 현장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더 이상 지역과 학교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새로운 교육 모델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꿈꾸는 예술터>² 및 서울시-서울문화재단의 <서서울예술교육센터>³ 등 지역사회의 문화와 예술교육 공간이 결합하면서, 학교와 연계를 도모하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예술강사 또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협업의 장을 새로이 열 수 있는 전략 등 새로운 지원 방식이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추미경 ● 꽤 오랜 시간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된 법 규정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우리의 관념과 실행 방식 속에는 자연스럽게

게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이 따로 인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우리가 이해하고 실행하던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로만 접근하면, 근본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이 향후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는 큰 맥락 속에서, 보다 장기적인 측면으로 전체적인 지원 프레임이 변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연 ●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이야기하니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앞에 이야기했던 코로나 이후의 문화예술교육 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질문 하나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코로나로 인해 예술교육 또한 온라인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영상 서비스로만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한다면 장르 간의 차이도 쉽게 인지하기 힘들고, 문화예술교육에서 중요한 미학적 경험과 철학적인 관점 등을 통해 보자면 경험이 아닌 단순 학습 위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 우려 지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창의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신정원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정원 ● 사실 현재 진행되는 온라인 교육,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전반을 돌아보면 보통은 화상회의, 녹화 기능이 있는 도구 위주로 실행되고, 학

2 지역 생활권 단위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사업(2018년 성남, 전주 조성 및 2019년 개관을 시작으로 2020년 부산 북구, 강릉, 밀양, 장수, 청주시 5개 지역 꿈꾸는 예술터 조성 예정)

3 어린이, 청소년의 ‘예술적 놀 권리’ 구현을 위해 차별화된 예술 놀이 콘텐츠를 연구개발하여 서울 서남권 학교와 지역에 제공하는 문화 플랫폼(서울문화재단)

생들은 과제물에 대해서 촬영 또는 녹음 등을 통해 올리는 수밖에 없어 지금은 단순 기능적 측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한계를 극복하고 필요한 툴(Tool)을 개발할지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교육자는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과 상호작용할 수 있을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임학순 ● 질문해주신 온라인 교육 등 현재 진행되는 교육방식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⁴이기 때문에 변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적정 기술의 환경 안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구현되어있는 플랫폼 활용에 대한 별도의 연구없이 예술강사에게 당장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만 해서 안 됩니다. 기술에 가치를 담아 기술의 감수성, 창의성, 그리고 인간화시키는 여러 부분이 문화예술교육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인프라가 필요하고 기술분야에 있는 전문가와의 협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단기적 접근 방식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앞으로 다가올 기술사회를 대비하는 장기적 접근 방식 모두를 채택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⁴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를 뜻하는 말.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원어만처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세대라는 의미가 있음

정민룡 ● ‘온라인’이라는 것이 교육에서 ‘대체재’인가, ‘보완재’인가를 놓고 봤을 때, 기존에는 ‘보완재’의 역할이 강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에서는 사람 자체를 대면하면서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런 대면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칭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대면을 통한 교육방식은 유효하리라 생각하고, 쉽게 대체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재’라기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측면이 여전히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만남’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변화하는 단편적 부분으로 온라인 교육이 대체가 된다거나, e-러닝의 형태가 전부가 되는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연 ● 네, 그럼 또 다른 의견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시청자 질문

15~20회차 등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으로 과연 창의교육이 가능한가,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에서 실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경험하고 체감해야 하는 도구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정민룡 ● 여전히 학교라는 곳은 ‘창의교육’이라는 것을 실행하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장소의 한계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전에 한 예술강사가 학교 선생님에게 단 하나의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들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

들이 그렇게도 많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실행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은 지역이나 사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표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소연 ● 사실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으로만 봤을 때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와 같이 사업화되고, 교육과정과 얽혀지는 등의 정책적 측면과 결합되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역할분담과 제한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문화예술교육이 기존에 학교라는 메커니즘을 그대로 활용하여 성장을 해왔다면, 이제는 조금 융감하게 이 메커니즘을 벗어난 시도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존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의 무게중심을 지역 및 사회와도 배분하고 연계해 볼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학순 ● 2018년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문화예술교육 종사자 대상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떻게 문화예술교육을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 기억으로는 많은 분이 ‘미래사회에 기술-예술 간 결합을 통한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다’라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예술종사자의 열망과 이를 받쳐줄 수 있는 정책적 시스템 및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의 온라인 기반의 교육은 정민관 관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기존 교육 형식의 ‘보완재’이면서 동시에 나름의 개척할 영역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여러 나라에서 실행하는 디지털 기술과 문화정책 경향을 들여다보면, 영국 스코틀랜드의 ‘타임 투 샤인(Time to Shine)’⁵ 프로젝트 등 2016년 이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장기적으로 기반 조성을 통한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연 ●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창의성, 그리고 창의성과 예술교육 간의 관계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5 영국 스코틀랜드 문화외교부의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의 일환으로 추진한 아동·청소년 예술발전 프로젝트. 지역 중심 예술 활동(Regional activity), 국가 차원 예술 활동(National arts activity), 참여를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Youth empowerment and engagement), 예술 형태에 따른 개발(Art from specific development), 다양한 범주의 예술 관련 활동 지원(Wider activity and support) 등의 활동 분야 지원

문화예술교육과 창의성, 다각화에 대하여

- 이동연** ● 신정원 교수님께서서는 공론화 추진단 과정에서 창의성 개념부터 시작하여 예술가와 함께 프로그램 개발 논의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원** ● 공론화 추진단 창의성-융합분과에서는 도대체 창의-융합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예술에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되짚어보면, 많은 분께서 ‘창의성’은 예술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특성이 있다는 데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예술이 어떤 경우에는 공포감을 주기도하고,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창의성’이 가미되어 있는 예술은 우리에게 공포감과 이질감을 줄지언정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육적 측면에서도 창의성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스스로 가진 여러 능력을 복합적으로 동원해서 무언가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경험을 통해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동시대에 문제점에 주목하여 증명을 하고자 한다든가, 새로 사용하게 된 기술을 작품에 끌어들이거나, 코로나와 같이 새롭게 맞게 된 사태나 현상에 대한 해석을 끌어오는 등의 창의성을 발현해왔습니다. 그래서 창의-융합예술교육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할 때 예술의 변화에도 주목하지만,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에 무엇이 필요한가에도 주목하는 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나오는 신기술을 예술 제작에 응용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여, 큰 범주로 보았을 때 첫째, 기존 존재하는 예술 장르 간 융합 프로그램 둘째, 예술-사회 간 연계 프로그램 셋째, 예술-기술 간 융합 프로그램 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 정민룡** ● 저는 사실 창의예술교육에 조금 비판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창의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창의성을 가두는 여러 환경에 대한 요소는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창의성을 길러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 없이 오로지 프로그램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의성과 더불어 순발력 등 사람이 가진 여러 능력을 교육이나 훈련 등을 통해서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이 아닌가라

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여러 경험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아이들마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능력이나 하나의 역량처럼 여기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조금 떨어지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수행력이 부족한 때에는 쉽게 “난 창의성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전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개념을 너무 도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실현할 환경 자체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서 하고 싶은 만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창의성이 발현되는 것이지, 단순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내가 하고 싶은 경험 자체를 확장해내고자 하는 욕구와 이를 실현해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정원 ● 정민룡 관장님께서는 창의성에 대해 비판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이 창의성 발현을 위해 가져야 하는 지향점과 바람을 담으셨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주도적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행 문화예술교육 프레임 안에서 시작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틀을 깨는 시도보다는 우선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는 큰 판을 짜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추미경 ● 저도 정민룡 관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창의성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한 개인에게 내재된 재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발현할 수 있고, 이를 표출할 수 있게끔 하고, 새로운 역량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치는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박소연 ● ‘창의적 환경’이 적극적으로는 정민룡 관장님께서 이야기한 무엇이든 해 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소극적으로는 적어도 실수해도 용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정답이 없고, 그렇기에 누구나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로 인해 훨씬 더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결국엔 입시, 취업 등 정답이 있는 경쟁 논리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문화예술교육이 이런 부분에서 숨통을 트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학순 ● 창의성을 지역문화 현장 관점으로 바라보면, 과연 지역 현장에서는 창의성이 발현될 정책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경쟁 중심 체제에 살고 있고, 그렇기에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도 서로 경험한 시간과 프로그램의 기획 내용을 공유하고 개방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 부분이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협업이라는 부분에서도 협업을 가능하게끔 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창의성 발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고민과 더불어 시스템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동연 ● 의견 모두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궁금한 지점들을 실시간으로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

창의·융합, 융합예술 등 4차 산업혁명 시류를 타면서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부상하고 이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에서도 본질적인 예술 가치와 창의성 등의 키워드 대신 기술 시스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융합적 창의성 교육에 너무 기술중심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추미경 ● 사실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특정 누군가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개념도 아니며 해석하는 지점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의성을 어떻게 발현하느냐에 따라 핵폭탄을 발명하기도 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창의성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기여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내기도 하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에서 전달하고자 하고 발현시키고자 하는 ‘창의성’이 어떤 창의성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창의·융합문화예술교육에서는 단순하게 기술을 융합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환경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가치 등을 발견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며, 앞서 말한 전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교육을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민룡 ● 창의성은 개인의 영역 자체가 아니라 문화, 사회적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의성을 두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창의적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창의적이다. 즉, ‘제일 심심할 때가 창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심심한 때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에 충분히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 것 같고, 이때 자기 필요를 스스로 느낀 사람이 그 필요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나 기술을 스스로 체득하고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력할 때, 우리가 꼭 융합이라고 드러내지 않더라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서 목적 자체를 실현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술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사실 정해진 ‘틀’을 주지 않는 것 자체가 이런 융합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문화예술교육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연 ● 모든 토론자분께서 창의성은 개인 또는 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는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특별 대담 기록집
—

3부. 지역 현장 중심의 생태계 조성

- 지역 현장 중심의 생태계 조성 - 체계를 중심으로
- 문화예술교육 지역 현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인력구조와 R&D 등)

지역 현장 중심의 생태계 조성 - 체계를 중심으로

이동연 ● 3부의 주요 주제는 지역사회와 문화예술교육 간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의 인적, 물적 인프라 마련입니다.

사실, 요새 지속해서 언급되고, 실행되고 있는 지역 중심형·밀착형 예술교육이야말로 현장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 부분이 실현되어야 생활권 안으로 스며들 수 있는 예술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역 중심의 지역문화예술교육에서 기초 지자체, 동네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를 실현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지역 현장 중심의 생태계 조성 관련하여 임학순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학순 ● 지난 15년 동안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은 양적으로도 대단한 성장을 하고, 질적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에 여러 이슈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비판적 시각으로 지난 세월 진행된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을 바라보자면, 너무나 중앙정부 중심의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된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문화예술교육 정책

초기에는 새로운 이슈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 중심의 접근이 의미 있고 또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8년 무렵부터 ‘지역분권’, ‘문화분권’이라는 이슈가 부각되고, 그와 함께 문화예술교육도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체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극적 논의를 통해 2019년부터는 시도별 지역문화예술교육 계획을 별도 수립하게 되는 과정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의 관계자·전문가와 이야기를 논의하다 보면 여전히 ‘지역’이라는 개념이 ‘광역 중심’에 머물고 있고, 우리 삶과 가깝게 밀착된 기초·생활권 단위까지는 닿지 못한 지점이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권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현장 실태를 바라보면, 아직 정책 거점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역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도 광역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진행되기 때문에 기초·생활권 단위의 현장이 배제된 거버넌스 체계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실태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문화 등 문화예술교육과 연관되어 보일 수 있는, 하지만 이것이 문화예술교육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을 떠나서 다양한 기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이야기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가 녹아든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문화예술교육은 그 지역사회의 이슈라던가 그 지역 내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연계·활용해야 하지만, 기초·생활권 단위는 이러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점입니다. 공론화 추진단 지역분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네 가지 측면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버넌스’에 관한 것입니다. 기초·생활권 단위에도 현재 광역에 설치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같은 거점 기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202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⁶을 추진하여 향후 2~3년 뒤에는 기초·생활권 단위에서도 이러한 거점 센터가 설치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점 기관의 역할은 ①정책 디자인, ②지역 보유 자원 발굴, 연계·협업 사업 설계, ③지역문화예술교육의 소통, 공유 협력망 구축 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적 측면에서 지자체가 문화예술교육 조례를 만들고, 시군구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된 협의체, 협의회 등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는 많은 장치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계획·재정 부분입니다. 시군구 단위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과 더불어 이를 실행시킬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입니

다. 초기 단계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는 기존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던 문화기반시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의 작업과 더불어 전용공간 구축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정민룡 ● 저도 공감합니다. 임학순 교수님 말씀한 바와 같이, 현재 문화예술교육 지원 체계 자체가 중앙·광역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민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수혜받고 있다는 체감도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사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많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같이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코 많지 않다고 느낍니다. 여전히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역에서 보유한 미술관, 박물관 등의 장소만을 한정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연계 진행하는 것도 예전의 방식인 것 같고, 현재 지역에는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점 구축의 문제는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이 공급되는 방식과 정책 전달 체계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문화예술교육 상당 부분이 광역 단위에서 머물고 있어서 기초·생활권까지 닿지 않아 문화예술 교육을 경험·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는 많은 손해를 입고 있지 않나라는 고민이 듭니다.

6 지역 문화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 스스로 설계·대응할 수 있는 ‘풀뿌리’ 문화예술교육 협력 거점 조성사업

추미경 ● 사실 정책 설계 및 접근 방식이 기초 단위로부터 설계되어 올라와야 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나, 현실적으로 중앙 중심에서 광역으로 확산되는 과정도 꽤 오랜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기초까지 확산을 두고 본다면 현재의 광역이 기초생활권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설계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원 체계 변경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은 아까 정민룡 관장님이 언급한 생활문화 등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문화예술교육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쟁보다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역할이 있고, 공동체 프로그램 또한 지니고 있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협력 연계하여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에 기초·생활권 단위의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권한을 주는 유연한 접근 방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박소연 ● 덧붙이자면 앞서 지역 이야기를 하시면서 학교도 결과적으로는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학교-지역 간의 연계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한 자율성이 있어야 자생적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고, 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예산을 중앙에서 교부하고, 예산 활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과정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다수의 프로그램은 늘 비슷하고 새롭지 않은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원 ● 저도 첨언하자면, 정민룡 관장님께서 미술관, 박물관을 활용한 교육이 옛날 모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기초·생활권 단위 측면에서 보면 '인프라'가 있고 없고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접근성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새롭지 않더라도 현재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교육을 시도해보고, 기획해보는 노력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마다 굉장히 독특한 문화들이 있을 텐데, 이런 문화를 살려볼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자생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동연 ●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어느 동네마다 배드민턴 연습장이 있잖아요? 저는 그 배드민턴 연습장을 보면서 문화예술교육은 저렇게 배드민턴, 탁구 동호회처럼 내 주변 어디나 있는 것은 될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시가 생활문화와 연관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려면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다가가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추미경 ● 사실은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역민 등 모두는 자기 나름의 여가 활동을 모두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일상적인 여가에 조금 더 유연하게 문화예술교육이 다가갈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정원 ●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집 밖을 나가면 있는 개인만의 산책로도 동네 마다 다 다를 것인데, 그 동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동네의 주민이 관심이 있는 것 등을 파악하여 일상생활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어나갈 수 있는 경험이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소연 ●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 저기는 좋은 문화 예술교육 공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전문화, 그리고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적, 물적 인프라를 채워나갈 수 있는 것도 정책 체계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동연 ● 네, 감사합니다. 지역 현장 이야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역 현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인력구조와 R&D 등)

추미경 ● 공론화 추진단 기반분과에서는 이런 문화예술교육 지역 현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기반, 크게 인력양성 및 R&D 두 축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그리고 다양화, 분권화되는 것에 맞추어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 양성 구조 등의 기반 조성 방식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동연 ● 기반 참 중요하죠. 요새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많은 거점기관이 지역 밀착형 기반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미경 ● 아주 필요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전에 지역에서는 이미 그런 거점 역할을 하는 기관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기초·생활권 단위에 그런 거점기관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중앙정부·광역·기초로 내려와야 하는 연결 체계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부터 필요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R&D 기반도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해야 할 역할은 별도로 있을 것이고, 각 지역에 필요와 관심에 따라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랩(Lab)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학순 ● 이런 기반 조성에서 ‘공간’을 중심으로 보자면 두 가지로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이미 지역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문화기반시설 등 공간과의 연계·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여전히 지역에 있는 공간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한 ‘꿈꾸는 예술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등 전용공간 구축을 통해 지역 인적 자원을 발굴해서 협업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아직 기초·생활권 단위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자체 기반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므로 지역, 학교 등과의 수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연 ● 기반 이야기를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예술강사’인데, 예술강사의 처우 개선만이 아니라 지역에 좋은 예술강사가 파견될 수 있고, 지속적인 재교육을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경 ● 저는 예술강사를 비롯해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인력에 대해 단기적 대응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가장 큰 원칙은 현장의 필요로부터, 현장의 성장으로부터 인력 학습 과정이 재구조화되어야 하는 점이며, 이런 변화를 통해서 지역과 인력의 선순환적인 관계 맺음이 되어야 합니다.

신정원 ● 지역에 계신 어떤 예술강사가 말씀해주신 내용이 기억납니다. 서울에서 전문인력 연수를 받았지만, 몇 차례의 연수로는 도저히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많은 예술강사들은 본인이 전공한 영역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높는데, 이런 욕구를 장기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장기간 현장 연수가 어렵다면 언제든지 교육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등의 개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연 ● 문화예술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교육자로서 많은 예술강사가 새로운 기대와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술강사의 미래 문제도 조금 더 언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룡 ● 예술강사도 사실 중앙 지원으로 시작된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중앙에서 인정하는 하나의 메이커로서 예술강사라는 것이 있었다면, 지역만의 특수한 것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 설계 등이 가능할 수 있는 지역형 예술강사도 많이 배출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화예술교육 지역화에 관한 문제, 이를 뒷받침해줄 인력에 관한 문제 등이 모두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단위로 예술강사를 설계할 수 있는 정책적 부분도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미경 ● 그렇게 되려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광역의 역할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모든 지역이 그렇게 금방 기반 설계가 되지 않을 거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 설계 과정을 지원하고, 필요를 연결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학순 ● 예술강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저는 예술강사를 바라볼 때 단순 교육을 전달하기만 하는 ‘강사’의 개념에서 ‘연구자’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강사 스스로 지역사회에 대해서 조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이를 문화예술교육에 실제 반영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는 중앙에서 연수를 구성해서, 연수장으로 오게 하는 푸시(Push) 전략보다는 필요에 따라 예술강사가 학습공동체(CoP)를 만들 수 있고 이를 지원하는 풀(Pull)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점들이 조금 더 고려된다면 보다 확장되고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장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연 ● 네. 모두 말씀 감사합니다.



문화
예술
교육

○ 향후 공론화가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미래 이슈

향후 공론화가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미래 이슈

이동연 ●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 토론회의 마지막으로 각 토론자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앞으로 공론화가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미래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임학순 ● 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변화가 앞으로 중요한 공론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중앙, 광역 중심의 전달체계에 장기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같은 선상으로 중앙의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할, 지원 체계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미경 ● 저는 이런 변화된 환경에 따라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야 하는 세대별 문화 역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세대마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역량과 가치들이 다를 텐데, 이런 부분을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도 논의해보고 바랍니다.

신정원 ● 코로나를 통해 갑작스레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게 되어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시도되고 있는 창의적 노력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효과적인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축적하고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소연 ● 한 가지만 꼽아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요소에 둘러싸여 있을 텐데, 현재 우리 문화예술교육 생태계가 어떻게 조성되어 있고 이 안에서 어떤 발전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과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민룡 ● 저는 미래까지는 아니고 향후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은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가꾸어져 왔습니다. 때로는 희생도 많았고요. 그렇기에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주체에 대한 성장동력 발굴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 문화예술교육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 등의 고유한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지원 체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동연 ● 사실 공론화 추진단이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까지의 논의를 진행하여 현재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방법의 변화나 전문인력이 처한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녹여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앞으로 후속 과제로 남아있을 텐데요. 향후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의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며,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특별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특별 대담’
현장스케치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특별 대담 기록집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www.arte.or.kr

 http://bit.ly/arte_youtube

